

## 종교평화 블로거가 지킨다

종평위 · 불교아카데미, 온라인서 종교차별 대응 모색

‘인류역사상 가장 손쉽고 편안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효과적인 여론 형성 수단.’ ‘블로그(blog)인 인터넷 연립’의 힘은 개인의 이미지(상품) 홍보에서 촛불문화제 등 사회운동 현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에서 이미 입증됐다.

1인 미디어 시대를 주도하는 블로거들이 종교평화 운동에 나섰다. 블로그의 전파력과 편의성을 종교평화 홍보와 사례적발, 대안 모색 등의 장구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종교평화 블로거의 첫 주자들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종위원장 세영·순안식)와 불교아카데미(원장 박희태)가 8월 19일부터 진행해 온 ‘종교평화블로거 양성교육’에 참가한 45명의 수강생들이다. 이들은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 종교평화 운동을 전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다. 모두 12강으로 진행된 교육의 핵심은 ‘종교의 위기와 종교차별의 이해’에서 ‘내 블로그 성공전략’까지 블로그 활용의 전반이다.

예를 들면 ‘종교평화블로거 활용 전략’ 제9강의 경우 기술, 사회관계, 미디어의 측면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즉, 다양한 예제 활용과



블로거는 사회현상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자신의 느낌과 의견을 게재해 사회 문제를 중요시안으로 부각시킨다.

콘텐츠 관리 요령, 블로거들간의 강한 유대감형성, 상호 커뮤니티를 통한 문제의식 소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교육됐다.

강사로 나선 윤남진 NGO리서치소장은 “올바른 논조의 구조와 원칙을 확립해 나가는 연습과 일관성 있는 글쓰기로 공중관계의 원활한 소통을 이뤄야한다”며 논리적 글쓰기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기남 불교아카데미 사무처장도 강의에서 “사찰에 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우리 집의 따뜻한 이야기, 길가다 보이는 종교차별행위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쓰면서 적극적인 불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봉간 유저스토리랩 기획팀장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사건이 터지면 신문과 방송보다 블로그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블로그에 올라온 의견이 일부는 공론화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블로그가 언론의 주요기능인 의제설정(議題設定, agenda-setting)기능을 해 사회적 문제를 강조, 보도함으로써 그것을 사회의 중요한 이슈(issue)로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평화블로거 양성교육을 수강한 블로거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제작한 블로그에 일기 칼럼 기사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출판·개인방송·커뮤니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일종의 1인 미디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을 주관한 종교평화위원회와 불교아카데미 측은 “종교 차별에 대한 기존 언론의 보도태도는 조심스러워 블로그를 통해 종교차별 근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교와 세상이 만나는 불교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결국 불교계의 ‘디지털 인맥’을 형성할 것이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 “종단 환골탈태 힘 모아달라” 태고종 제24대 총무원장 인공 스님 취임

열반의 언덕을 향해 생사 고행을 건너는 ‘한국불교태고종’이 10월 28일 제24대 총무원장 인공 스님(사진 왼쪽) 취임식을 기해 새 뜻을 올렸다.

태고종 총본산 신촌 봉원사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내외빈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취임법회에서는 행정부위원장 청봉, 교무부위원장 법현, 재정부위원장 화경 스님의 임명식도 함께 열려 24대 집행부의 출범을 알렸다.

인공 스님은 취임사에서 “안정과 화합 위에 종단발전을 위한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환골탈태하는 종단 발전에 종도들의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인공 스님은 이날 △종지종풍 확립으로 종단 정체성 정립 △승풍 진작과 원융화합종단 구현 △제도개혁 통한 구조적 모순점 개선 △사회적 역할 확대 등 4대 중책기조도 제시했다.

이날 취임법회에서는 제23대 총무원장 윤산 스님의 이임식도 진행됐다.

글=노덕현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좋은 일을 했다면 거둬들여  
되풀이해 그 좋은 일 속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라.

현대불교 @자라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한림 031)792-6288  
현등 031)794-4055

02)3672-7181~5  
불교서적출판  
운 주 사

불경금액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문의 02)722-1850

문젠 명상 센터  
선 / 명상 / 요가  
임산부 요가  
02-956-2460

얼레와일 두리야 전문  
보이차, 각종 차음  
생할 도우기  
031)882-1357  
전국 직점 배송

**금주의 HAT.....**

**빛고을아카데미**  
혜인 스님  
14시상종계

**중화선사**  
만행 스님  
12수행현장

**신임 포교사단장**  
임희웅  
08불자들

## ‘한국전통사상총서’ 한글역 7권 발간

조계종 전통사상서 간행위 10월 28일 봉정법회... 영역본은 내년에 출간

한국불교 문화의 정수(精髓)를 책으로 모은 <한국전통사상총서> 불교편 한글역 7권이 발간됐다. 조계종 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위원장 지관·총무원장)는 10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전통사상총서> 불교편 13권 중 7권이 출간됐다고 밝히고, 28일 봉정법회를 병행했다.

지관 스님은 “세계가 한 집안인 시대에서 해외에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고자 3년 여에 걸쳐 한국 고승이 남긴 금지옥엽 같은 귀중한 저술을 모아 우리말과 영어로 번역해왔다”고 말했다.

<한국전통사상총서> 발간 사업은 조계종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총사업비 30여 억원을 규모로 2006년 12월부터 진행돼 왔다. 원호 지눌 휴정 등 한국불교 대표 스님 저술과 화엄 등 제교학, 공안집과 선어록 등 선서(禪書), 문화, 비문(碑文), 계음 등 13권으로 구성됐다. 한글과 영어 동시 번역·출간되는 책은 모두 26권이다. 이번에 발간된 한글역은 원호(권1) 지눌(권2) 화엄(권2) 제교학(권6) 선어록(권8) 시선집(권9) 문화(권10) 등 7권이다. 휴정(권3) 화엄(권4) 공안집(권7) 계음·2권 11~12) 비문집(권13) 등 나머지 5권의 한글역은 올해 안에 발간된다.

영역본은 2010년 출간되며, 영역본 출간과 동시에 <한국전통사상총서>를 PDF 파일로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전통사상총서>는 ‘다자간(多者間) 번역시스템’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다자간 번역시스템은 기존의 대부분 번역서가 1~2인의 번역자에 의존하는 현실

에서 공동번역·교정 작업을 통해 자의적 해석에 따른 오류를 줄이고 교차검토 등 수차례 확인·검증을 거쳐 국내의 연구성과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글역에는 해주 스님(동국대)과 교육 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 연구실장), 원철 스님(前 해인사 강사 등) 학승과 정병삼 숙명여대 교수, 이진우 부산대 교수, 김영옥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참가했다.

영역본은 안종영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를 비롯해 로버스 버스웰 교수(美 UCLA), 찰스 윌러 교수(日 동경대), 존 조르겐센 교수(濠, 그리피스대) 등이 번역을 맡았다. 한글역과 영역본의 대조·교열 자료는 미산·정덕 스님(중앙승가대)과 율미 스님(美 듀크대) 등이 참여했다.

조종섭 기자

## 백양사 야단법석에서 깨달음의 길을 찾는다

황벽스님이 어느 날 백양선사에게 물었다.  
“대대로 내려오는 禪의 진수를 어떻게 가르치렵니까?”  
백양선사가 잠자코(良久)있자 황벽이 다그치듯 말했다.  
“스승께서는 뒷사람들로 하여금 禪을 단절시키지는 마십시오.”  
스승은 한 마디를 던지고 방장실로 들어갔다.  
“자네가 禪을 단절시키는 사람이네.”

修行的 目的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불교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법을 논하라. 아니면 침묵하라.”  
우리는 희론(戲論)과 침묵에서 벗어나 법을 논하고자 합니다.  
여기 열린마당에 모여 ‘깨달음의 길’을 찾습니다.

**[주제와 강사]**

- ① 실천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 - 고우스님(조계종 원로위원)
- ② 대승경전을 통한 깨달음의 길 - 시몽스님(백양사 주지)
- ③ 생명평화운동을 통한 깨달음의 길 - 도법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 ④ 동사섭을 통한 깨달음의 길 - 용타스님(사단법인 동사섭 이사장)
- ⑤ 간화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 - 월암스님(함양 벽송사 벽송선원장)
- ⑥ 초경경전을 통한 깨달음의 길 - 각묵스님(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 ⑦ 조사어록을 통한 깨달음의 길 - 향봉스님(익산 사지암 주지)

	오전 8-11시	오후 2-5시	오후 7-9시
11월 21일 (첫째 날)		고우스님	시몽스님
11월 22일 (둘째 날)	각묵스님	용타스님	용타스님
11월 23일 (셋째 날)	도법스님	월암스님	월암스님
11월 24일 (넷째 날)	시몽스님	향봉스님	향봉스님
11월 25일	도법스님		

■ 장 소 : 고불총림 백양사  
■ 집 결 : 2009년 11월 21일 (토) 낮 12시  
■ 입 재 : 2009년 11월 21일 (토) 오후 2시 (백양사 방장 수산 큰스님 입재 법어)  
■ 회 향 : 11월 25일(수) 오전 11시 (4박 5일)  
■ 대상자 : 사부대중 누구나, 선착순 200명  
■ 동참비 : 출가자 - 10만원 / 재가자 - 20만원  
■ 접수처 : 농협 645117-51-017109 (예금주: 백양사)  
■ 주 최 : 고불총림 백양사 ■ 후 원 : 현대불교신문사  
■ 접수처 : 백양사 종무소  
■ 문 의 : ☎ 061)392-7502, 전송 061)392-2081  
■ 동절기이므로 개인침구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고불총림 백양사**